

우리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떨까?

-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17개 시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유연근무 이용률 증가하고,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 일·생활 균형 지수: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 활용(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산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수행)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다. ▲일(+1.4), ▲생활(+0.3), ▲제도(+0.9), ▲지자체 관심도(+1.4)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근로시간의 감소 및 유연근무 이용률(유연근무 활용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증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등에 기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서울이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부산, 세종, 충북, 대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북, 전북, 강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에 기인해 ‘제도’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도 높아 ‘일’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 부산은 전년보다 총점은 다소 하락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상승 등에 힘입어 ‘생활’ 영역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큰 곳은 울산과 충북으로 각각 '21년 대비 12.2점 (16위→7위), 11.4점(14위→4위)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전체 사업장)과 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일' 영역의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일·생활균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돋보였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었으나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최어지니 (044-202-7503)
담당 부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담당자	본부장	전기택 (02-3156-7178)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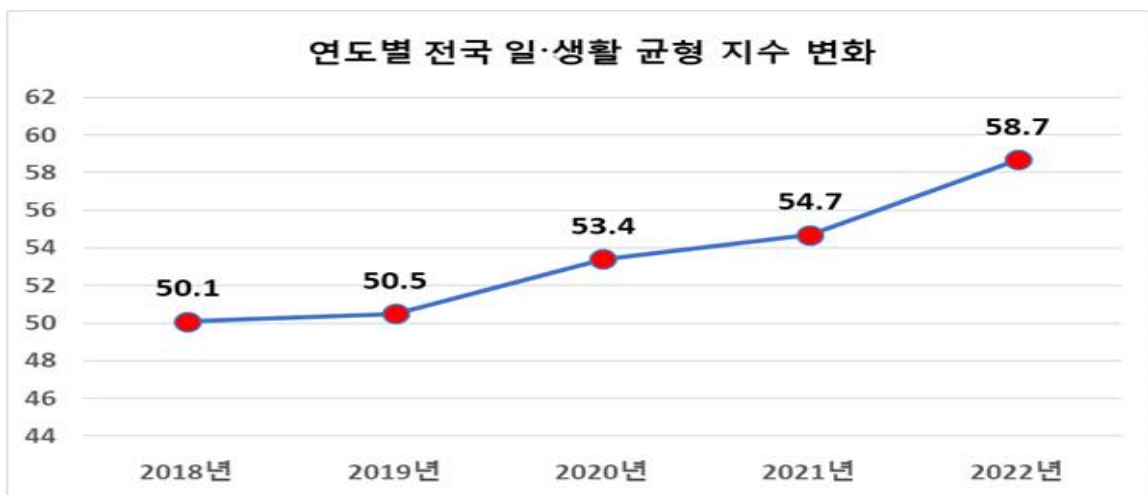
- 지역 단위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발표(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①일, ②생활, ③제도, ④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 >

영역(배점)	세부 지표(24개 지표)
일 (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점)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22년 기준 지수 산출 개요

- (총점) '22년 기준 전국 평균은 '21년 54.7점보다 4점 증가한 58.7점으로,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17개 시도 중 15개 지역에서 상승)



- (영역별) 일(+1.4), 생활(+0.3), 제도(+0.9), 지자체 관심도(+1.4) 모든 영역에서 점수 증가, 특히 '일', '지자체 관심도' 영역의 증가폭이 큼

- (지역별) 서울(64.8), 부산(63.7), 세종(62.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강원(50.9), 전북(54.8), 경북(55.6)은 낮게 나타남, 시가 도에 비해 강세
- * (서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총근로시간·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 등에 상위권 기록하며 '일'과 '제도' 영역 강세
- (부산) '지자체 관심도'가 가장 높고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상승 등에 따라 '생활' 영역 강세



- (증감 측면) 전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울산(+12.2점, 16→7위), 충북(+11.4점, 14→4위)의 점수 상승폭이 컸고, 경기(+1점, 6→11위), 충남(+1.8점, 7→12위), 경남(+0.1점, 5→10위)의 순위하락이 컸음
- * 충북은 모든 영역에서, 울산은 생활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으며, 두 지자체 모두 근로시간 감소 등 '일'과 조례 제정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상승폭 큼

□ '22년 기준 지수 세부 영역별 결과

- (일 영역) 총 근로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 휴가기간 증가(11개), 유연근무 도입률 감소(11개)했으나 이용률은 증가(15개)
 - 제주(17.1), 서울(16.5), 광주(15.6)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강원(12.4), 경남(13.0), 충남(13.6)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울산(+5.3점, 17→4위), 충북(+3.7점, 16→5위), 인천(+2.8, 15→6위)의 점수 상승 폭이 큼
 - * 제주는 휴가기간,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 증가 등으로 지난해(3위)와 달리 1위 등극
- (생활 영역) 일-여가생활의 균형 정도 개선(13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13개) 및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11개) 상승
 -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 부산(18.3), 충남(17.7), 충북(17.7)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경기(15.7), 대전(15.8), 경북(15.9)이 하위권이며, 충남(+2점, 12→2위), 대구(+1.3점, 16→10위), 충북(+1.2점, 6→3위), 전남(+1.0점, 13→7위)의 점수 상승 폭이 큼
 - * 부산은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상승에 따라 지난해(2위)와 달리 1위 등극

○ **(제도 영역)** 모든 지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증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10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사업장 비율 증가(13개),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증가(13개)

- 세종(21.6), 서울(21.0), 인천(19.0)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제주(14.0), 전북(14.7), 강원(15.0)이 낮으며, 인천(+3.4점, 10→3위), 세종(2.8점, 2위→1위), 전남(+2.3점, 16→10위)의 점수 상승 폭이 큼

* 세종은 남녀 육아휴직 사업장 비율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증가에 따라 지난해(2위)와 달리 1위 등극

○ **(지자체 관심도 영역)** 일·생활 균형 관련 홍보(12개) 실적, 교육·컨설팅 경험 업체 비율(16개) 증가

- 부산(12.8), 전남(12.6), 경남(12.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강원(7.2), 제주(7.5), 광주(7.5)가 낮게 나타났으며, 울산(+5.3점, 16→11위), 경북(+4.8점, 15→12위), 충북(+4.7점, 12→4위)의 점수 상승 폭이 큼

* 부산은 지난해에 비해 총점은 소폭 감소했으나 교육·컨설팅 경험 업체 비율 증가 등 올해도 1위

지역	총점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전체평균	54.7	-	58.7	-	4	-	13.2	14.6	1.4	16.4	16.7	0.3	16.2	17.1	0.9	8.8	10.2	1.4
시 평균	56.5	-	60.6	-	4.1	-	13.5	14.9	1.4	16.3	16.6	0.3	17.5	18.7	1.2	9.3	10.4	1.1
서울	62	2	64.8	1	2.8	↑1	15.9	16.5	0.6	16.3	16.3	0	20.3	21	0.7	9.5	11	1.5
부산	64.1	1	63.7	2	-0.4	↓1	13.8	14.6	0.8	18.2	18.3	0.1	18.2	18.1	-0.1	13.9	12.8	-1.1
대구	54.8	10	60.6	5	5.8	↑5	13.5	14.7	1.2	15.1	16.4	1.3	16.6	18.3	1.7	9.5	11.2	1.7
인천	50.6	13	58.9	9	8.3	↑4	12.1	14.9	2.8	15.7	16	0.3	15.6	19	3.4	7.2	8.9	1.7
광주	52.2	11	55.8	14	3.6	↓3	12.9	15.6	2.7	16.7	17.1	0.4	16.1	15.6	-0.5	6.6	7.5	0.9
대전	60.3	4	59.3	8	-1	↓4	16.1	14.1	-2	16.2	15.8	-0.4	18	18	0	10	11.4	1.4
울산	47.3	16	59.5	7	12.2	↑9	9.8	15.1	5.3	16.6	16.5	-0.1	16.3	18	1.7	4.6	9.9	5.3
세종	60.8	3	62.2	3	1.4	-0	13.9	13.9	0	15.4	16.1	0.7	18.8	21.6	2.8	12.7	10.5	-2.2
도 평균	53	-	57	-	4	-	13.0	14.4	1.4	16.5	16.9	0.4	15.1	15.6	0.5	8.4	10.1	1.7
경기	56.9	6	57.9	11	1	↓5	12.9	14.7	1.8	15.9	15.7	-0.2	15.6	16.6	1	12.6	11	-1.6
강원	48.9	15	50.9	17	2	↓2	13.3	12.4	-0.9	16	16.3	0.3	15.1	15	-0.1	4.5	7.2	2.7
충북	49.4	14	60.8	4	11.4	↑10	11.3	15	3.7	16.5	17.7	1.2	14.7	16.5	1.8	6.9	11.6	4.7
충남	56	7	57.8	12	1.8	↓5	13.5	13.6	0.1	15.7	17.7	2	17.9	15.9	-2	8.9	10.5	1.6
전북	50.9	12	54.8	16	3.9	↓4	12.8	14.6	1.8	16.3	16.7	0.4	15.3	14.7	-0.6	6.5	8.7	2.2
전남	54.9	8	60.5	6	5.6	↑2	13.7	14.7	1	15.7	16.7	1	14.2	16.5	2.3	11.3	12.6	1.3
경북	47.3	17	55.6	15	8.3	↑2	12.7	14.2	1.5	15.1	15.9	0.8	14.6	15.7	1.1	4.9	9.7	4.8
경남	58.1	5	58.2	10	0.1	↓5	12.5	13	0.5	16.6	17.4	0.8	16.4	15.7	-0.7	12.7	12	-0.7
제주	54.8	9	56.2	13	1.4	↓4	14.5	17.1	2.6	21.1	17.5	-3.6	12	14	2	7.2	7.5	0.3

참고 2

일·생활 균형 지역별 지수 산출 기준표

영역	지표명	자료원	기준값	비고	
일 (5개)	총근로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2020년 이전: 세종, 충남 동일	150시간	1,800시간/12개월	
	초과근로 시간	-2020년 이후: 세종, 충남 분리	2.0시간	2023년 추정값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국민여가활동조사	15일	2017년 근로자 평균연차 휴가부여일수(15.1일)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36.4%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21.6%		
생활 (7)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생활시간조사(공표주기 5년)	0.5	남성 가사노동시간 /전체 가사노동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홀수해)	81.2%	2023년 추정값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짝수해)	74.1%	2023년 추정값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사회조사(홀수해)	12.5%	2023년 추정값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5.69시간	2023년 추정값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100점	7점 만점 기준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국민여가활동조사	10.0%	2023년 추정값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2.60%	2023년 추정값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0.59%	2023년 추정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행기업)	고용보험DB	0.37%	2023년 추정값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9.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보육통계	25.6%	2023년 추정값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학교알리미	24.9%	2023년 추정값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81.6점	2023년 추정값	
지자체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1.0점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근로자(시민) 및 기업지원 명시 만점(1점)	
	담당조직 유무	사도 홈페이지(조직도) 및 관련 자료	1.1점	담당조직 형태 만점(1점)+ 관련 조직 5개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9.9점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13.8%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등	28.06개 (인구 천 명당)	2023년 추정값	